

##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0월 공식 발표



국방부가 오는 10월께 광주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세 곳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역의 현안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제주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광주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순위로 무안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해묵은 군공항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전 예상 지역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후보지별 사업비 산출 "10월 발표"= 21일 국회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3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

### 예비이전후보지 1순위 무안군·2순위 해남군·3순위 고흥군 '유력' 국방부, 이전 지역 추가 지원금 5000억원 ... 주민 반대 여부 관건

지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고,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 및 중전부지까지 산출을 마치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까지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 등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방안을 수용하는 지역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이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로 예측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1순위 무안군, 2순위 해남군, 3순위에 고흥군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주민투표·추가 지원 변수= 지원 방안과 규모가 확정된다 해도 예비이전 후보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예비이전후보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무안 등지에서는 일부 주민이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등 내거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중요 변수 중 하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도 맞닿아 있는 등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의 공항과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 특별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국조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국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전부지를 최소화 하고, 소음완충지역을 늘려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를 위한 지역민의 집단지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로 국방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국내 군공항 이전 지역 중 가장 속도가 늦은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도 본격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전 대상인 군공항 중 대구군공항은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수원군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실제 군공항을 옮길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8-2020년까지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인접 적합성 등을 놓고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했다.

한편 광주군공항 이전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5조7000억원을 들여 광주의 중전부지(8.2㎢·248만평)를 개발해 신공항(15.3㎢·463만평)을 만드는 게 핵심이며, 신공항은 비행장(11.7㎢·353만평)과 소음완충지역(3.6㎢·110만평)으로 조성된다. 현 제도로는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낸 뒤 이 돈으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대구와 수원에 비해 중전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낮아 광주시 등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전 지역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광주 전 자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2020년 12월 지정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를 비롯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광주를 비롯해 전주 완산구, 부산 등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지면서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이 충족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광주는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이후 매주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매물이 쌓이는 등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됐다.

올해 6~8월 자치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남구 -0.13%를 비롯해 북구 -0.18%, 광산구·동구 -0.09%, 서구 -0.09% 등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주택구매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집세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시장도 다소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광주의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대출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국립해양수산물물관 어디로 갈까? ▶2면
- 인권도시 광주 '다크투어리즘' 성공하려면 ▶6면
- 벤투호 평가전 - 이강인 발끝을 주목하라 ▶18면

## 한경, 광주 인쇄 시대 개막!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한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77-5454**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후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성취대로 104-1 (동정환)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동급  
 - EQS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회 도상 : 4.2, 고속도로 : 3.9 | 1회 충전거리(km) : 440, 공차중량(kg) : 2405,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S 4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차량은 표준모드에서 이월 전량으로 도상 상태, 운전 방법, 차질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상주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이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